

2. 원죄의 처벌

먼저 창 2:16-17 을 읽어 보십시오.

창세기 2 :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2 :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원죄의 처벌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영적 죽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차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예수님에 의한 회복도 이 순서를 거칩니다. 먼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적 부활인 중생과, 예수님의 재림시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읽어 보십시오.

창세기 3 : 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죽도록 만들어 진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로마서 6:23 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에 대해 알고 가십시오.

창세기 3 : 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사탄은 흙에서부터 온 인간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3. 원죄의 특성 : 죄성(罪性)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5)

3:5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그러면 원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아담이 지은 원죄는 하나님과의 종속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한 불신앙에서 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독립성, 무의탁성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성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종속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독립된 존재로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같은 것 필요없이, 주권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살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같이 자의지적 결정의 주체가 되어 살아갑니다.

무의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여 살겠다고 하는 것이 무의탁성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것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무의탁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같은 것 필요 없다, 내 힘으로 살아 보자 하는 것이 무의탁성입니다¹.

독립성과 무의탁성은 원죄를 타고난 인간의 대표적 성격입니다.

이와 같이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독립성과 무의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공자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모두가 이 독립성과 무의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와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함과 같이 영원한 사망!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지옥이 그 댓가입니다.

4. 죄의 연대성(Solidarity of Original Sin)

¹.하박국 1 : 11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에스겔 18 : 2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이뇨 (렘 31:29)

에스겔 18 : 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구절은 조상의 죄의 형벌에 후손도 함께 참여하여, 연대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날 옛날 아담이 지은 것이니까! 난 아담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해.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닌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인이 된 것은 내가 선택해서 한국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김씨가 된 것은 내가 선택해서 김씨가 된 것이 아니고 김씨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김씨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혈통을 받아 태어나면 한국인이고, 김씨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김씨입니다. 조상을 한번도 본적이 없더라도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최초의 조상인 죄인(罪人) 아담과 죄인 이브가 결혼하여 구성된 죄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연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목청이 터져라 외쳐봐도 그 사람은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한다. 죄인임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5. 전가(Imputation)

전가는 영어로는 Imputation 이라고 합니다.

조상이 지은 죄가 그 후손에게 이전되어 함께 처벌에 참여하는 것을 설명하는 신학적 용어가 전가입니다.

전가는 법적 책임이나 효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전하여 변적 지위나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가에 의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담의 후손도 함께 죄를 지은 것이 되며,

전가에 의해 아담의 죄의 처벌에 후손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거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어 죄인이 되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가는 구원의 전과정을 관통하는 화살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12 Wherefore, as by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by sin;

and so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은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입니다. 죄는 아담 한 사람이 지었는데 그의 모든 후손도 함께 죄를 진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면** ‘김’ 이라고 하는 Family Name 을 갖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 이브와 죄인 아담이** 구성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 후손은 **죄인이라는 Family Name 을 갖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담의 Family Name 은 죄인입니다.

죄인 이브와 죄인 아담이 구성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 후손은 죄라는 property 를 상속받으니 죄인이 되고, 죄의 property 를 상속받으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손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부모를 따라 후손도 같이 죽게 됩니까?

부모의 죄의 법적 책임이 후손에게도 전가 되어 후손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또 아담이 죄를 지어 죄의 노예가 되어 그 후손도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다같이 다음 구절을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6 : 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6 Know ye not, that to whom ye yield yourselves servants to obey, his servants ye are to whom ye obey; whether of sin unto death, or of obedience unto righteousness?

아담이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드려 죄의 종이 된 것이, 그 후손에게도 전가되어 그 후손도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 책임이나 효력을 남에게도 이전하여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신학적 용어가 전가입니다.

이렇게 imputation(전가)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원죄가 전가되었다고 할 때 죄책과 오염을 말합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음의 처벌을 말하고, 오염은 죄책의 전가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인격이 완전히 부패해 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의 죄책의 전가로 죽음이, 오염의 전가로 후손의 모든 인격이 죄로 인해 부패 되었습니다.

5.1. 원죄의 죄책의 전가의 결과로 사망이 오다.

롬 5;12 이리므로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2 Wherefore, as by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by sin;
and so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한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입니다. 여기서 한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 함으로 인하여 후손 모두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책이 후손 모두에게 전가되어 죽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창 2:17 을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2 :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불신앙한 결과로, 죄책으로 인해 처벌로 영육간의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의 죄책이 그 후손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 왔습니다. “

이러므로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구원론시리즈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Follow 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Like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구원론시리즈를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브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구원론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구원론 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